

서효인의 '소설처럼'



현정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현직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 나가서도 부정 선거론을 설파했다. 몇 가지 객관적 사실과 담백한 논리만 머릿속에 배열할 수 있으면 부정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의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진 뇌는 사실과 논리의 배열을 어려워한다. 사실과 논리가 아닌 확증과 왜곡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2024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 '뇌썩음(Brain rot)'은 이러한 현상과 사람을 지칭하기에 알맞다.

뇌를 쓰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임을 입시를 체험해 본 우리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뇌를 쓰려고 한다. 생각하고 의심하려고 한다. 문제를 풀고 답을 내려고 한다. 그렇게 뇌를 써야만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출현하고 난 이후 어쩔지 뇌를 많이 쓰지 않아도 많이 아는 것만 같고, 뇌를 쓰지 않고 있는데 뇌를 쓰고 있는 듯한 착각이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진 듯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의자도 그중 하나일 테다.

뇌썩음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분별을 어렵게 한다. 뇌썩음은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는 행위의 윤리적 판단을 흐트러뜨린다. 뇌썩음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고전을 집어 들며

- 구은서 '이유 있는 고전'

은 음모론을 깨뜨리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하게 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썩은 뇌가 믿는 가상 세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재생하여 그의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반증은 버리고 확증은 강화한다. 토론은 지양하고 선동을 지향한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발효가 아닌 썩어버린 식재료를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리사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이 식재료가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뇌썩음을 하나의 병증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치료는 그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고 책을 쥐여주는 것이다. 영상 없이 활자를 대하는 것은 뇌의 활성화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 또한 긴 시간 인류와 문명에 의해 고전으로 평가받는 장편소설을 읽을 것을 권한다. 고전 소설은 삶의 총체성을 구현하고 있기에, 편향된 생각으로 삶의 구석을 노려보느라 피폐해진 사고를 유연하고 영리한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곧바로 톨스토이나 헤밍웨이의 소설을 탐독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법하니, 그 시작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일간지 기자로 매주 100권이 넘는 신간을 살핀 구은서 기자의 '이유 있는 고전'이다. 보르헤

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이르기까지 25편이 고전을 쉽고 알차게 다뤘다. 어떤 이는 읽은 것들은 다시 내용을 확인하며 그 시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읽은 고전을 살피며 교양을 짚을 수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자는 뇌썩음 상태에서 탈출을 도와줄 고전을 이 책에서 고를 수도 있다.

그중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곱씹는다. 많은 이가 이 소설을 죄수에서 예수로 변모하는 사나이 장 발장의 일대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의 지속성을 담은 장대한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일련걸 "독자는 '변혁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는가' 질문하게 되고, 공화주의자인 마리우스와 왕당파인 질노랑방 간의 설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이라면 뇌썩음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곧 치료라 될 것이다. 가장 쉽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처방은 고전 읽기다. 고전은 고전의 이유가 있다.

<시인>

社說

尹 주장, 변론 아닌 지지층 결집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나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까지 주장하는 등 일말의 반성은커녕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민이 TV를 통해 계엄 선포직후 국회에 군이 투입되고, 이에 대해 곧바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또다시 모두의 공분을 샀다.

이날 변론에서 공개된 12·3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내외부 CCTV 영상을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고 말했다. 즉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계

엄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터무니 없다. 당시 표결을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이며,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한 국민들의 판단이다. 더욱이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한 것 자체는 병력 수가 얼마인 비무장이거나 비폭력이었음이라든가 불법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임에 틀림없다.

유한 법률가이자 대통령이든 사람이 유튜브버스를 타드는 음모론을 법정에서 버젓이 주장한 것은 망상에 빠진 것이거나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적이 없으며, 국회 무력화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해 또다시 모두의 공분을 샀다.

이날 변론에서 공개된 12·3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내외부 CCTV 영상을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고 말했다. 즉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계

10주년 맞은 ACC, 아시아 문화허브 되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옛 전남도청 부지에 조성된 ACC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은 미흡했다.

지하로 배치된 시설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원인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ACC 측의 노력 부족도 광주시민들을 불러들이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ACC를 찾는 시민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보기 보다 지상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많았다. 오히려 광주를 찾는 외지 문화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인식되곤 했다.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정한 아시아 문화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라는 슬로건에서 집적할 수 있듯 융복합 전시를 상설화 하고 기관 브랜드 대표

공연을 개발해 아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ACC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궁가'와 '심청가'를 원작으로 한 '드라곤강'과 '두 개의 눈'에 이어 올해 '흥보가'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판소리극 '제비노정기'를 무대에 올릴 계획인데 세 개의 판소리 연작이 ACC의 대표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인 'ACC 미래운동화'와 지역 대표 작가 이이남 초대전도 관심을 끄는 10주년 프로젝트다.

얼마 전에 ACC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명소로 공인받았다.

올해는 ACC측이 밝힌 것처럼 지역 예술인들과 더 소통해 이들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나아가 아시아 문화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無等鼓

영화나 드라마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등장하면 일단 방어적 자세가 된다. 과장된 단어 선택과 어투가 신경 쓰여 "음, 이건 진짜 우리가 쓰는 전라도 말이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이든다. 개인적으로는 고인이 된 김지영 배우나 '은실이'와 '응답하라' 시리즈의 성동일 배우가 가장 실제와 근접한 전라도말을 쓴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다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2020년 생택쥐페리의 '어린왕자'를 경상도(포항) 방언으로 고쳐 쓴 '애린왕자'를 재미있게 읽었다. 독일의 출판사 팀텐파스가 진행 중인 '어린왕자' 전세계 언어 번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책이었다.

이듬해 출간된 전라도(전북 사투리) 버전의 제목은 '애린왕자'였다. 유명한 어린왕자와 여우의 대화는 이렇게 변신했다. "니가 오후 네 시에 온다 하든 난 세 시부터 기분이 좋아질 것이며, 시간이거든 갈수록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시가 딱 되면 인자 난 벌써 안달이 나 갖곤 걱정을 할 것이며."

지난해 출간된 강원도 판 '언나 왕자'의 한대목은 '내 비밀은 이야기. 마이 간단해.

마음으로 바야 진짜가 베게. 진짜 중한 그는 절대루 내 두 눈으루는 볼 수 읍아.다.

최근 출간된 화순 출신 손준승 작가의 '전라의 말들:이것을 읽어보면 우리는 거시기어'(유유)는 흥미로운 책이다. 전라도 사투리가 담긴 100개의 문장과 이야기를 엮은 책의 제목은 가수 송가인이 '아는 형남'에서 했던 말을 응용했다. 사투리 책은 '만다모 그래 세빠지게 해랏노'(경상의 말들), '여기두 사투리 있걸랑'(서울의 말들), '그렇게 바쁘른 어제 오지 그랬슈'(충청의 말들)까지 시리즈로 나왔다.

'전라의 말들'의 첫번째 문장 '야, 있냐'부터 사람을 끌어당긴다. 전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저 말이 전하는 뉘앙스를 알기에 미소가 지어진다. '야, 있냐'는 광주정소년 살디자언센터 1824 쓰기 클럽의 이름이기도 하다.

며칠 후면 설 명절이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 친지, 친구들이 고향을 찾는 날이다. 오랜만의 만남이 주는 어색함은 이 말 한마디에 사라지고, 신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금께 야, 있냐"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의료칼럼

명절 증후군 극복하기



박병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목, 어깨통증 같은 근골격계의 전신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주부뿐 아니라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부모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절증후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질환은 주로 바닥에 오래 앉아서 많은 양의 전을 지지거나 생선을 굽는 등 음식준비를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운반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작업은 평소보다 일의 강도가 높고,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탈이 나기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바닥에 앉아서 일하기 보다는 식탁이나 테이블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음식 준비를 분담해 일의 양을 줄이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일하는 중간 중간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남자들은 수시간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가거나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마저 있기 때문에 운전 중간에 자주 쉬어주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명절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좋다. 명절증후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통증이 아니라 정신적

트레스에 의한 후유증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 때는 명절에 더 심하게 고생했다"는 전 세대의 기억보다는 후 세대에게는 더 많은 기쁨과 추억을 줄 수 있는 명절을 만들기 위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차례를 지낸 뒤에는 반드시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고생했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손으로서 음식을 만들어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종교나 가족의 수가 줄면서 상처를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여성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감이 클 수도 있는 탓이다.

명절이 끝나서도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혼자 참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리와 목, 무릎 같은 관절통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명절 전후에 나타나는 가슴답답함이나 우울감, 불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침 치료 등을 받을 것을 권한다.

기고

고교무상교육 거부하는 반교육적 작태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항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5.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5년 한시 규정으로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교육청은 지난해 정부의 부자 감세 등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추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10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줄어들었다며 대규모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재정이 거덜났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도 걱정스럽다는 의식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당원들이 고교무상교육은 중단 없이 유지하겠다고 주장했기에 교육에 대해서는 결과 속이 다르지 않을 거라 기대했었다.

비록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중단됐지만, 다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돼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무상교육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여 꼭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 책임의 공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한 이번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고 공교육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공교육의 질적 후퇴와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 모두 국가가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고교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세입재원의 90% 이상을 정부 교부금과 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23, 2024년 연속 초유의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대규모 감액 추경을 해 말짱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운용에 어려움과 큰 혼란을 야기할 바 있다. 2년 연속 세수 켜크로 인한 부족분을 기금으로 메꾸는 바람에 남은 기금도 1700억원으로 올해가 지나면 고갈될 위기임이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셋째, 균등한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교부금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그만큼 냉난방 등 학교 교실 환경 개선이나 급식시설 교체사업이 늦춰지거나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교육 환경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시 특별법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더 나아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이 바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때다.

교육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지털뉴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